

시끼보의 멜텍스 - 적자경영의 적극적인 개선추진

시끼보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연결자회사(連結子會社)인 머메이드·텍스타일(Mermaid Textile : 약칭 멜텍스)이 적자를 보이자, 영업활동을 다양화함으로써 적자경영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멜텍스는 현재 방적시설이 5만추를 약간 웃돌고 있으며, 직기는 300대를 밑돌고, 편성기는 26대, 염색가공 설비는 월 250만yd의 가공능력을 갖고 있어, 방적에서부터 제직 및 제편과 염색가공까지 일관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멜텍스가 경영적자를 내기 시작한 요인은 2002년 1월부터 달러회계로 바꾼 것이 환차손(換差損)을 발생하게 하였으며, 또한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서 경영상황이 악화하여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시끼보는 적자 경영을 개선하고자 멜텍스에서의 출자비율을 72.8%로 올리면서 자회사로 만들고, 방적시설을 보완하고 직기를 광폭으로 교체하면서 직물 연속 가공 설비를 160 170cm폭으로 광폭화(廣幅化)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공장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그 동안 일본에서만 생산이 가능하였던 천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다. 그 동안 시끼보는 멜텍스의 생산품 중 40%를 시끼보의 영업활동에 이용해왔는데, 앞으로는 멜텍스를 활용한 시끼보의 영업활동을 보다 더 다양화하기 위하여 멜텍스에서의 발주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폴리에스터/면 혼방 셔츠지 생산을 위탁해 오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편성포 생산의 위탁규모도 확대함으로써 시끼보의 영업활동을 다양화할 것이다.